

原子力發電과 環境保全

(上)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盧在植

韓國에너지研究所

原子力安全센터 首席專門委員

1. 序論

에너지は 國民의 日常生活은 물론 國家의 產業經濟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原動力이다. 즉充分한 에너지를 供給하는 것이야 말로 持續的인 社會·經濟發展에 必須의인 일일 것이다. 또 이와같은 表現이 先進工業國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人口增加와 都市化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開發途上國에게는 더욱 多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의 將來가 技術成長과 매우 단단히 연계되어 있다”고까지 言及한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다른말로 표현한다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에너지 供給量의 증가가 심각하게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사실 工業化를 통한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에너지 需要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누구나 바라는 福祉次元의 社會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에너지를 安定的으로 確保하는 일이 더욱 必須의인 要件이 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源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資源貧國인 경우에는 化石燃料를 代身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源의 開發이야말로 오늘날의 각국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主要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點에서 이른바 第3의 불이라고 일컬어지는 原子力を 發電手段으로 着想한 것이 1960년代初의 일이었으며,當時의 原子力院內에 原子力發電課를 設置하여 計劃에서 推進段階로 挑躍한 것이 1967年의 일이었다. 이것은 1965年에 IAEA와 共同으로 發電所候補敷地를 選定하는作業을 마무리짓는 즈음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1978年 7月 20日 60萬kW 發電施設容量의 古里 1號機가 준공될 때까지 古里 앞바다의 海洋調查, 微氣象調查, 地質, 地盤調查 등 環境調查가 推進됨으로써豫備安全性 分析 報告書가 準備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原子力發電과 環境保全의 첫 因緣이 맺어진 것이다.

한편 原電 8號機가 얼마전 商業稼動 됨으로써 原子力發電施設容量이 차지하는 比率이 30.1%

로 伸張하였고 특히 平日發電量에서 原子力發電比重이 50%를 웃도는 오늘날을 맞고보니 真實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작년 6月 23일에는 原子力發電(以下 原電이라고 한다) 1,000億kWh를 돌파하였는 바 작년이 우리나라에서 電氣물이 처음으로 그 환한 빛을 발한지 꼭 100년째 되는 해임을 생각할 때 더욱 感慨無量하다.

이와같은 原子力發電計劃은 또 나라의 경제발전계획에 발맞추어 계속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마도 국내 原電에서 쓰게 될 核燃料를 全量 國產化해서 供給하게 될 1991年에는 全發電施設容量의 33.4%인 761만 6천kW가 原電에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979年 3月에 發生한 미국의 TMI原電事故와 1986年 4月에 發生한 소련의 Chernobyl原電事故는 그 事故規模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原子力 產業을 東과 西에서 각각 主導해 온 原子力 超先進國에서 發生하였다는 共通點과 이를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安全基準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볼 때 21세기의 主에너지源을 原子力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우리나라로서는 艱은 교훈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原電中心의 電源供給体制로 들어가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의 原子力發電과 環境保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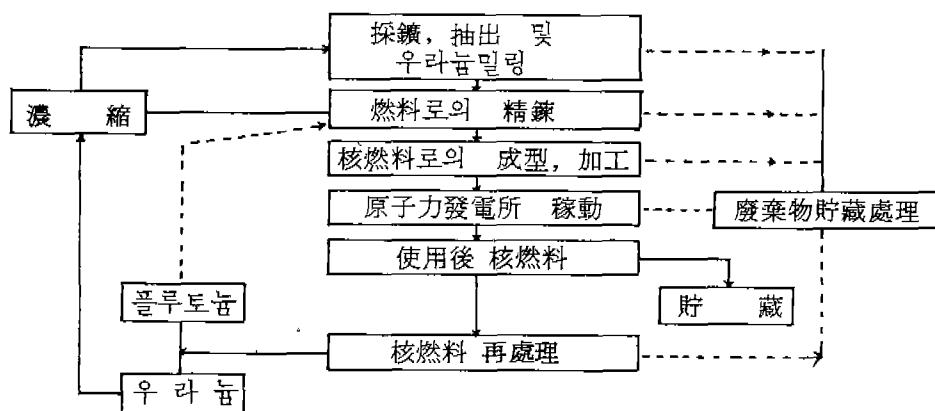
問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또 어떻게 改善함으로써 快適한 環境으로 保全하면서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내다보는 小考를 펼쳐 나갈까 생각한다.

2. 原子力發電과 環境問題

原子力發電과 관련되는 環境影響問題가 다른發電方式이나 人間活動이 誘發하는 環境問題와 다른 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 原子力發電인 경우에는 放射線과 放射性物質에 의한 영향이 追加될 수 있다는 事實이며

둘째 : 바로 이 追加事項이 原子力發電用 燃料 즉 核燃料가 短아야 할 宿命 이론과 核燃料週期의 모든 段階에서 環境問題를 빚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그림1 참조). 즉 核燃料의 調達(採礦, 精鍊, 成型, 加工 등)이라든가 使用後 核燃料 및 放射性廢棄物(Radioactive Wastes)의 貯藏, 處理, 處分 등 이론과 核燃料週期(Nuclear Fuel Cycle)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全體의 Total System으로서 꼭넓게 고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Total System을 구성하는 生產·消費·還元이라는 각 Sub System에서 생긴 要因이 自然環境과 人工環境으로 구성되는 Biogeo-



〈그림 1〉 우라늄系 核燃料 Cycle의 主要段階

chemical Ecosystem이라는 Total System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在來式火力發電所에서 보다는 훨씬 많은 冷却水(100kW發電施設容量인 경우 火力發電所에서는 秒當 30톤 정도가 필요하지만 原子力發電所에서는 50톤 / 초 정도가 된다)가 필요함으로써 야기되는 敷地選定·確保上의 立地 環境的 어려움과 그 많은 冷却水가 隣接水体(Water Body)로 放流라는 形態로 되돌려져 나올 때는 温排水化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放射能도 관여하는 환경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原子力發電과 관련되는 環境영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物理學的用語만 구사해서 表現할 경우 放射線의 放出과 热의 排出로 인한 영향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특히 温排水로 인한 水体의 水温上昇이 水圈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温排水 흐름에 의한 水底地形 및 底棲生物 등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負的(Negative)일 수도 있고 때로는 陽的(Positive)일 수도 있는 二律性이 있음을 排除할 수 없으며, 大氣內로의 放熱로 인한 局地的 微氣象의變化 및 排水水域의 水温上昇으로 인한 水質의 二次的變質 등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火力發電所와는 달리 都市나 工業團地에 隣接해 있는 在來式火力發電所를 原子力發電所로 置換한다는 단순한 接近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周邊의 自然環境과 文化環境과 文化環境 및 갖가지 施設 즉 周邊產業群과 公共施設 등의 役割 내지 性格까지 달라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의 複雜한 有機體로서 탈바꿈할 可能性마저 임태하고 있다는 點도 특징이다.

특히 原子力發電所와 그 關聯施設周邊에 常住하는 住民의 健康에 미칠 惡影響과 隣近周邊 生態系에 棲息하는 動·植物에 미칠 영향은 물론, 廣大한 土地空間을 原子力發電이라는 한가지 目的만으로 專有하여야 한다는 事業自体의 規模特性은 가뜩이나 國土가 狹小한 우리나라인 경우 地域社會에 미칠 갖가지 波及영향까지도 고려한

環境影響評價(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事業計劃立案段階부터 事前調查 評價되어야 한다는 특징도 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點 다른 一般環境問題도 그렇지만 放射線環境問題 또한 위낙 廣範圍한 것이어서 쉽게接近하기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음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즉 理·工學 및 生命科學을 포함한 自然科學分野뿐만 아니라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인 부문 등 많은 분야의 公正적인 參여와 共感帶形成(가장 理想的인 것은 合意形式을 통한 一致된 結論)없이는 所期目的 達成을 위한 원만한 解決點을 찾기 어려운 次元높은 問題임을 再照明치 않을 수 없다.

一般的으로 核 에너지 利用·開發行爲가 環境에 미치는 영향은 原子力發電所 가동에 따른 發電所에서의 環境影響問題와 核燃料週期의 끝 부분의 하나인 核燃料 再處理工場에서의 高準位 放射能으로 인한 環境影響問題로 大別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前者에 대한 고려만 배려한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放射性廢棄物의 處分과 관련된 環境影響을 포함한 核燃料週期 全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함으로써 原子力發電中心의 電源供給体制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環境保全에 萬般의 準備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와같은 當爲性의 背景은 都市廢棄物이나 一般產業廢棄物에서 이미 우리가 체험한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선 안되겠다는 人間的인 反省에 뿌리를 둔 것이 틀림없으며, 일반廢棄物이 갖는 化學的 毒性보다는 壽命이 훨씬 긴 放射性廢棄物(低·中準位廢棄物: 300年, 高準位廢棄物: 10萬年)에 의한 영향의 可能性에 더 큰 경각심을 스스로 불려 일으킨 良識의 產物이라고도 보고 싶다.

3. 放射性物質의 環境內로의 漏出과 그 영향

가. 放射性物質의 環境內로의 漏出

核燃料週期의 각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潛在的障害를 방어하는 최선의 안전대책은 다른一般環境汚染問題를 다룰 때도 그려하듯 그發生源에서 源泉의으로 封鎖하는 노력일 것이다. 물론 Zero Discharge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들의環境保全目標로 設定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림2는 放射性物質이 일단 大氣內 및 地表·地表水로 放出된 다음 人体에까지 다다르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인 바 各樣各色의 경로를 거쳐

서 体内·外를 被曝시킴으로써 障害를 유발할 可能성을 示唆하고 있다.

즉 大氣內로 放出된 放射性物質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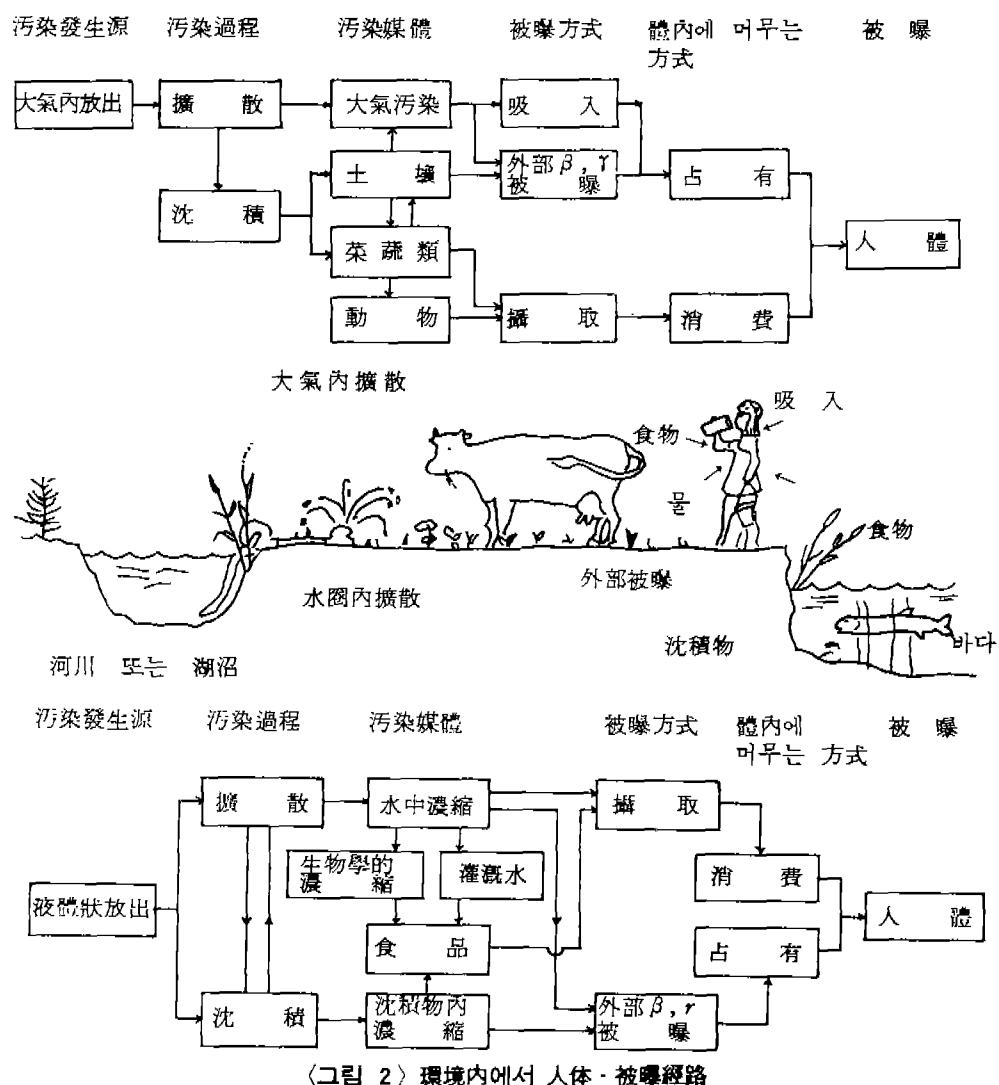
① 体外 空氣內를 浮遊中임으로써 直接的인 全身外部被曝이 가능하며 또

② 이를 吸入함으로써 생기는 内部被曝

③ 牧草등에 沈積된 家畜을 거쳐 食用肉·牛乳로서 人体에 摄取된 다음의 内部被曝

④ 잎이 많은 野菜類에 沈着된 것을 人体가 摄取함으로써 생기는 内部被曝

⑤ 土壤에 沈積한 것이 植物을 거쳐 人体내로 摄取된 뒤의 内部被曝 등이 가능하여



88올림픽공식화가 블라드씨(영국인), 올림픽 개회식 광경을 화폭에

88서울 올림픽의 공식 화가로 지명된 영국인 게리 블라드씨는, 오는 1990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개관될 새 올림픽 예술박물관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금년 55세인 블라드씨는 9월 17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올림픽 개회식 광경을 두 점의 대형 화폭에 담아 달라는 위촉을 받고 있다.

“나는 스타디움과 수천명의 각국 선수들의 파노라마를 배경으로 한 공식 개회식의 그림이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 민속문화의 비공식적 전시가 특징을 이루

게 될 것입니다”하고, 그는 잉글랜드 중부 맨스필드에 있는 집에서 설명했다.

그는 대회 기간 동안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공식 신입장을 받아, 올림픽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생활하는 선수들의 스케치 50여장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블라드씨는 최근 후안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만나 복식 테니스 경기의 그림 한 점을 선사했다. 그가 전에 그린 스포츠 스타들이 관한 그림은 이제 값진 소장품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전 뉴질랜드 육상선수 피터 스넬, 전 영국 올림픽 선수 앤 패커와 로비 브라이트웰, 그리고 영국의

크리켓 타자 데이비드 고워 등이 들어 있다.

그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20년전 투르 드 프랑스 자전거 경기의 극적인 골인 장면을 그린 그림을 경기 책임자인 자크 고데씨에게 선사하고부터인데, 자신이 열성적인 사이클리스트인 블라드씨는 그 경기에 특히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이름난 풍경화가이기도 한 그는 올림픽 지명화가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스포츠와 미술을 결합시키는 그의 솜씨를 과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液体狀으로 水圈에 放出된 放射性物質은

① 水路(Water Way)를 거쳐 飲料水 形態로 人体内로 들어가 일으키는 内部被曝

② 水路를 거쳐 水產植物 또는 魚貝類로서 人体에 摄取된 다음의 内部 被曝

③ 水路→水圈植物→動物→人体内에 들어가 일으키는 内部被曝

④ 水路에서 直接 人体에 미치는 外部被曝

⑤ 水路를 거쳐 沈積物에 묻혀 있는 狀態에서의 外部被曝 등 하다하다.

따라서 排(放)出源에서의 環境破壞要因量을 源泉的으로 最少化시키는 길만이 가장 경제적이며 최선의 單純方案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이와 같은 要領으로 항상 先決하겠다는 方法論上의 슬기가 요구된다.

나. 放射線의 影響

放射線에 被曝됨으로써 人体가 받게 되는 영향을 大別한다면 방사선에 피폭된 당사자에게 미치는 이론바 身體的영향(Somatic Effect)과 피폭된 사람의 子孫에게까지 미치게 될 이론바 遺傳的영향(Genetic Effect)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몇몇 環境變異源(Environmental Mutagen)인 特殊化工藥品을 除外하고는 一般環境染污問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여기서 大量의 放射線에 피폭된 個体에 대한 영향 또는 障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定立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표 1 참조) 소련 Chernobyl 原電事故時 6 Gy (600rad) 以上의 被曝者로推定되는 사람 가운데 致命的인 骨髓障害可能性이 있는 약 25명중 骨髓移植을 施行한 13명 가운데生存한, 사람이 2명(한 사람은 爐心에서 100m 멀어진 곳에서 9 Gy (900rad) 정도 피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5세의 技士이며, 또 한 사람은 爐心에서 500m되는 地點에서 3 Gy (300rad) 정도 피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69세의 남성)이나 되었다는例外도 있는 것 같다.

한편 自然放射線 또는 이보다 훨씬 낮은 極低準位放射線($10^0 \sim 10^1 \mu\text{R}/\text{hr}$)에 피폭되었을 경우의 影響에 대해서는 아직도 直接的으로 確認된 바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상당히 오랜 潛伏期間이 경과한 다음에도 白血病이나 癌이 발생할 가능성이란가 染色体에 미치는 影響까지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

(표 1) 全身被曝에 따른 急性影響(X線 또는 γ線)

1回線量 (R : Roentgen)	障 害	基準量 (R)
25	거의 臨床的 症狀 없음	緊急作業時 最大許容線量: 100 事故時制限線量: 25
50	若干의 血液變化 이외는 명백한 影響 없음	
100	강한 宿醉, 대부분 한때 매스거림과 구역질 및 呕吐을 느끼.	危險限界線量: 100
150	宿醉 50% 매스거림과 구역질에 이어 放射線病의 症狀이 나타난다.	
200	長期的인 白血球減少	
250	死亡 10%, 대개의 사람은 매스거림 구역질을 일으키며 放射線病의 症狀이 있고, 被曝 후 2~6週내 10%程度 死亡, 生存者は 3個月內에 回復	
400	死亡 50% (30日間), 生存者は 回復時까지 6個月 所要된다.	半致死量 (50%): 400
600	死亡 90% (14日間), 少數의 生存者は 回復하는데 6個月 이상 걸린다.	
700	死亡 100%, 數時間內에 放射線病症狀이 나타난다.	致死量 (100%): 700
1,000	1~2時間내에 매스거림 및 구역질이 생기며 放射線病症狀이 나타난다.	

련 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방호에 관한 哲學은 다음과 같은 原則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 개개 방사선피폭원은 그것에 피폭됨으로써 얻게 되는 利益과 比較해서 正當化되거나 다른 利用可能한 代案과 비교해서 正當化되어야 한다.
- 꼭 피폭되어야 할 방사선의 量은 合理的으로 이룩할 수 있는限 가장 적은 量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ALARA)으로 출여야

한다.

· 피폭되는 線量當量(Dose Equivalent)은 주어진 線量制限値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앞으로의 發展을 위하여 餘裕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線量制限値를 勸告하는 對象으로서 ICRP는 個人別로 두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다. 즉 職業上 作業中에 피폭되는 成人과 集團全体 中의 個人으로 구분해서 권고하고 있다. 職業의 인 放射線作業者를 放射線으로 부터 防護하기

위하여 ICRP가 권고한 主要線量制限值는 年間 實效線量當量(Annual Effective Dose Equivalent)이 1年동안에 어느 방사선작업자에 대해서도 50mSv(\approx 5 re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실지 방사선작업자가 피폭되는 年間線量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 두 번째 카테고리인 集團全体中의 개개인에 대한 年間制限值는 5 mSv(\approx 500mrem)인데, 위 두 경우 모두 自然放射線과 醫療上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除外한 制限值임을 알아두기 바란다.

그리고 이들 모든 피폭선량에 ALARA原則을 엄격히 적용하다보니 集團全体속의 個人에 대한 年間線量當量를 年間 0.5mSv(\approx 50 m rem)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이 값은 自然放射線(Natural Background)의 變動보다 훨씬 낮은 값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가령 Scotland에 사는 한 사람이 Edinburgh에서 Aberdeen으로 이동하면서 받게 되는 자연방사선의 年間增加量은 1mSv 내지 2mSv(100m rem 내지 200m rem)일 것이며, 미국내 東部州에서 Colorado로 이동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자연방사선의 증가분은 1mSv~1.5mSv(100m rem~150m rem 내지 250m rem)이나 될 것이다. 이와같은 차이는 表高의 差異와 그 地方의 鑽物成分의 差에서 나오는 差異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ALARA原則下의 接近方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輕水爐型 原子力發電所에 대한 放射性物質放出量低減技術과 設計가 技術의 積累되었기 때문에 發電用原子爐 1機당 年間 0.05mSv(5 m rem)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방사선에 민감한 日本에서도 이 원칙을 준용해서 原子力發電所에 대해서는 年間 0.05mSv(5 m rem)이하가 되게끔 지침을 설정한 바 있다.

이것은 個体가 自然Background 방사선준위($10\sim25\mu\text{R}/\text{hr}$) 정도의 낮은 線量에 피폭되었을 경우, 비록 확률론적 영향은 낮다고 볼 수 있겠

지만 集團을 構成하는 個体 모두가 그 정도로 피폭되었을 경우의 어떤 영향을 장그리 排除할 수 없기 때문에 한 民族全体의 健康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論理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사선 被曝源이 되는 여하한 방사선물질의 환경에로의 漏出도 그 排出源에서 源泉의으로 最少化시키는 努力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發電用原子爐의 최대발전용량과 거기에서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性質과 量, 原子爐設計에 적용한 公認設計基準, 事故發生時의 방사성물질 방출확률 및 그 영향, 原子爐事故에 대비시킬 施設 및 防禦壁의 安全特性을 골자로 하는 原子爐設計 및 運轉特性을 파악함은 물론 原子力發電所 주변 人口分布 및 敷地의 環境條件에 적합한 非居住地域의 設定, 低人口地帶 및 人口中心距離와의 연계성을 合理的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敷地의 地形, 地質, 地震, 地下水, 氣象, 陸生生物, 環境事項, 河川湖沼, 自然景觀, 社會環境, 環境放射能, 海生生物등의 特性을 事前 조사하여 健全한 環境 영향 평가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原子爐의 安全運轉과 環境영향의 최소화를 도모한 工學的安全措置(Engineered Safeguard)도 강구해서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가령 原子力發電所 敷地 및 주변환경에 대한 규제로서

- 地震, 洪水, 海溢 등의 自然災害發生 可能性이 없어야 하며

- 自然條件, 火災, 自体爆發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변인근에 여하한 방사선장해도 유발시키지 않도록 구조·설비를 강화·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發電用原子爐는 가능한한 人口密集地帶 또는 日常住居中心地帶로 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原則이다.

(계속)